

“올해는 ESCO의 에너지절약활동이 더욱 필요한 시기”

■ 이선호 기자(w3master@energycenter.co.kr)

지난해 ESCO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ESCO의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신 결과로 ESCO투자실적이 에너지관리공단의 자금인출 금액기준으로 1,40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지원금 751억원의 약 2배이며, 내용면으로도 자금지원 시설이 조명위주의 기존 흐름을 벗어나 열병합, 냉난방, 공정 개선 등 설비위주로 ESCO사업이 다양화되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지난해 공공부문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였으며, ESCO투자시 자금은 에너지사용자가 조달하고 ESCO는 기술력과 에너지절약성과를 보증하는 에너지절약 성과보증계약 제도를 개발완료 하였습니다.

올해(2003년)의 ESCO사업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올해(2003년)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개정을 통해 ESCO투자사업 건당 자금지원 한도를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자금지원대상 시설도 일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절감부문 비중확대,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를 명확히 규정한 새로운 에너지절약 용역사업 적격심사기준이 2월부터 개정시행될 예정이며, ESCO의 부채비율 감소 방안으로 개발된 에너지절약 성과보증계약제가 최초로 도입 시행되어 ESCO의 부채비율 감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SCO사업은 도입 10년만에 양적·질적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ESCO사업 육성의 의미와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ESCO사업은 정부주도의 에너지절약운동에서 민간의 창의

와 참여를 바탕으로 한 민간에 의한 에너지절약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 10년간 시행, 육성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 ESCO에 대한 자금지원은 '93년 5억원(3건)을 시작으로 2002년 말 기준 총 4,135억원(1,999건)이 지원되었으며, 이에 따른 효과는 석유환산톤으로 연간 531천톤, 금액으로는 연간 약 1,600억원의 에너지절감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민간부문 및 산업체에서의 ESCO사업은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유인요소 및 대책은 무엇입니까?

ESCO가 활성화된 선진 외국의 경우도 ESCO제도 시행초기에는 사업이 용이한 조명기기 및 냉난방기기 등 단순설비의 개체에서 시작하여 ESCO자체의 기술이 축적되면서 공정 개선 및 폐열회수사업 등 보다 고급화된 복합 기술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ESCO제도 시행초기에 ESCO사업이 공공부문의 조명기기 개체사업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ESCO제도의 초기 정착 단계에 일어나는 현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현재 민간부문 및 산업체에 대한 ESCO 투자건수 비율을 보면 '01년 34%에서 '02년 47%로 투자사업 건수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작년 말까지 총투자 금액면에서 민간부문 및 산업체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66%(2,735억원)로 나타나고 있어 민간부문의 투자가 활성화되어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ESCO가 현재와 같이 단순 기술사업분야에서 탈피하여 전문화되고 다각적인 사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ESCO업체의 진단전문가 양성은 물론, 측정·평가기법을 개발·보급함과 아울러 전문화, 전업화를 유도함으로써 민간부문 및 산업체로의 ESCO시장 확대 및 질적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ESCO가 현재와 같이 단순 기술사업분야에서 탈피하여 전문화되고 다각적인 사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ESCO업체의 진단전문기 양성은 물론, 측정·평가기법 개발·보급함과 아울러 전문화, 전업화를 유도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신년을 맞아 에너지절약산업 종사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미국의 대이라크 군사행동 가능성, 북한 핵개발 등 불안한 국제정세에 따라 이미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2003년도 국내 경기 상황도 나빠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SCO시장 또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럴 때일수록 ESCO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활동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산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올 한해도 국가 에너지절약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회(具鼎會) 본부장은 1947년 생으로 영산고 및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에너지관리공단 서울 지사장 및 총무관리처장을 역임한 후 지난 해부터 사업진흥본부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